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5. 1

2nd Week

목 차

1. 본문

- ▷ 2015년 국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IoT 중심으로
- ▷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에서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2건의 표준 승인

2. 단신/토막뉴스.....4 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 2015년 국제 CES는 IoT 중심으로

보도날짜 2014.12.29

출 처 CES

사 이 트 <http://www.cesweb.org/News/Press-Releases/CES-Press-Release.aspx?NodeID=bc2c6e17-3991-4897-88ab-114f115dc8b9>

※참고사이트: <http://www.whathifi.com/news/ces-2015-uhd-alliance-aims-to-establish-industry-standard-4k-content-and-devices>,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5010509521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50106072344

- 2015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개최. 소비자가전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ES)는 본 박람회에서 IoT(Internet of Things) 분야의 전시업체가 900개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IoT가 가장 인기 있는 주제로 확인됨
- 2015 CES에서는 삼성전자 주도로 UHD Alliance를 발족함. UHD Alliance는 삼성전자, LG전자, 샤프, 파나소닉, 소니비주얼프로덕트, 월트디즈니, 20세기폭스, 워너브라더스, 디렉TV, 돌비, 넷플릭스 등 주요 TV제조사와 할리우드 스튜디오, 소비자가전, 그리고 콘텐츠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서로 다른 UHD 규격을 통일하고 부족한 UHD 콘텐츠를 확보해 4K¹⁾ 콘텐츠와 기기 관련 산업표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CES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그 중 삼성전자는 가장 혁신적인 반도체 제품으로 선정된 SSD(Solid State Drive) 'T1'을 선보임. SSD 'T1'은 30g의 가벼운 무게와 기존 외장 HDD보다 4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고, 자동으로 온도를 감지해 과열을 막는 편리성을 제공함
- LG전자는 'LG전자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어 '웹OS 2.0²⁾'과 '웰니스 플랫폼³⁾' 등의 전략 제품과 혁신기술을 소개하였고, 타 브랜드 기기와의 호환성 향상을 위해 IoT 표준기구인 Allseen Alliance와 IoT 글로벌 표준화협의체 OneM2M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2015 CES의 자세한 일정은 <http://www.cesweb.org/Register-Plan/Full-Schedule>를 참고

1) 4K: 약 800만 화소. 1920x1080 Full-HD 해상도의 4배인 3840x2160해상도로 출력이 가능해 훨씬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음

2) 웹OS 2.0: 지난해 선보인 웹O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스마트TV 전용 플랫폼

3) 웰니스 플랫폼: LG전자의 '생체신호분석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의 가전제품과 연동해 신체 건강부터 생활환경까지 관리하는 플랫폼

2.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에서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2건의 표준 승인

보도날짜 2014.12.25

출 처 zdnet korea

사 이 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41225133844

- 국립전파연구원은 2014년 12월 19일에 끝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의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추진된 2건의 국제표준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발표. 2건의 표준은 '무선국 설치 시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방법'과 'ICT 제품 네트워크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 방법'임. 이번 성과로 국제 표준화기구의 전자파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무선국 설치 시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방법'은 무선국을 새로 설치할 때, 이로 인한 주변의 전자파 환경 변화와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하는 세부 절차임. 이 표준은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한 첫 번째 국제 표준 이라는데 의의가 있음
- 'ICT 제품 네트워크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 방법'은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상세 지침임. 지난 2012년 3월부터 우리나라가 공동에디터로 참여했고,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표준 적용 시범사업 결과와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의 환경영향 평가 방법이 반영되어 개정됨
- 이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네트워크 단말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시 참조모델' 등 2건의 표준안이 승인준비과정(consent)으로 채택되었고, 회원국들의 회람 후 표준으로 승인될 예정임

단신/토막뉴스

CCSA, 정보통신 공급시스템과 인프라 에너지 절약 신기술 응용 세미나 개최

http://www.ccsa.org.cn/docs/notice/browse.php?article_id=notice_91ce97d5-0149-948e-fc79-54a11343a4eb&categories_id=6c63ac3e-e993-6b52-be33-44b1bf227509

- 2014년 8월, 공업정보화부는 <정보통신산업 에너지 절약과 종합이용 기술 분야 표준시스템 건설 방안 (工业和通信业节能与综合利用领域技术标准体系建设方案)>을 발행. 이는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소 표준화작업, 녹색저탄소발전에 표준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앞으로 통신 산업은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시스템 표준화를 가속화하고, 적극적으로 그린 ICT 기술을 탐구하며 다른 분야의 표준연구 작업의 에너지 절약을 연구할 예정임
- 중국통신표준화협회(CCSA)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에너지 절약과 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중시했음. 이를 위해 2015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양일에 걸쳐 '정보통신시스템발전과 인프라 에너지 절약 신기술 응용 세미나 (信息通信供电系统发展与基础设施节能新技术应用高级研修班)'를 개최할 예정임
- 연구내용으로는 통신 산업 표준화 에너지 절약기술 진행, 데이터센터 운영자 및 전력기술 기획, 클라우드 컴퓨팅에 시대에 걸 맞는 데이터 센터 설계, 통신네트워크에서의 태양전지 응용 등 10가지가 선정됨